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 團 韓 國 生 藥 協 會
社 法 人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시세동향 2면
- 전시회 이모저모 3면
- 사진으로 본 전시회 4·5면
- 약초유래를 찾아서 6면
- 건강식, 한방주 7면

국산약재 한자리에



◇전시행사는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올 한해 수확한 국산 한약재 1백50여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날 21일부터 25일까지 용산역 광장은 국산약재를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으로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한류생약협회가 지난 해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국내 재배 약초 1백50여종과 희귀 약재들을 각도 전시관 별로 특색있게 꾸며지며 한약재 외에도 생약재

국내재배·희귀약재 1백50여종 전시 건강·상담실 운영 한의사 무료진료도

이렇지기도 했는데 처방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소비자들은 상담실은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한의사 상담실은 다 품 한약재 중 우수생약

지황수매 지연

가격 높고 줄다리기

국내산 지황 수매가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이미 수확을 끝낸 재배 농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황 싹수유자인 대한

한류생약협회가 제시한 지황수매가는 전지황 한근당 3천원 선. 이에 대해 대한약협측은 수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반박. 협회측은 전지황 수매가 1백20t의 지황이 생산됐는데 수확량만 70만t 정도인 데 비해 수매가격이 3천원 선인 데 비해 100만t 정도인 데 비해 수매가격이 4천500원 선(94년말 수산물 통계자료)에 비해 수매가격이 4천500원 선이라고 반박한다.

치자값도 폭락

올생산량 예년의 2.5배

과잉재배

2.5배 가량 늘어난 1천여t 정도는 추산되고 있다. 제약사들의 수입엑스제 사용 증가도 치자값 폭락의 한 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전남 진안에서 한약재 도매업을 하는 이순우씨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치자를 농가들로부터 매입해서 일정한 값을 매겨 제약사에 납품하곤 했었는데 작년부터 엑스제로 수입해들이는 바람에 올날출량이 예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치자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치자(건조)도 매시세는 6백9 기준 3천5백원 선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7천5백원 시세에 비하면 무려 절반가량으로 급락한 것이다. 이처럼 치자값이 급하락한 데는 무엇보다 과잉재배가 큰 원인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치자 전부 총 생산량은 약 4백50t(94년말 수산물 통계자료)에 비해 올 생산량이 1천100t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서울시한약도매협회
대한잠사회
(주) 중앙제약
극동약업(주)
(주) 영남약업
명진제약업사

대한한약협회
서울경동약령시협회
경동약령시장진흥회
동부재료상사
흥일약업(주)
(주) 우성약업
조흥은행제기지점

한국약용작물학회
동대문구한의사회
조선무약(주)
세웅산업(주)
한미약업(주)
동명건재약업사
보람은행